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

# 먹거리 · 농민 · 생태계 · 지역사회 '건강 회복' 이 키워드

친환경농업, 자원순환 · 저투입농법 확산시켜 환경부하 최소화 ·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농자재 '안전 · 환경성' 과학적 검증 지난, 과다투입 환경부하 우려 높아

**친** 환경농업(또는 환경농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전에 불과하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농업정책 분야는 물론 언론 매체에서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최근 웰빙(참살이) 트렌드의 확산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실 전통적인 농업은 농업생태계에서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친화적인 생명산업이었다. 그러나 제한된 부존자원 여건 하에서 증가하는 인구의 부양을 위해 생산성 증대를 중시하는 집약적인 현대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생산 활동으로부터 토양유실, 지력감퇴, 연작장해, 수질악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농업' 또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으로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으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개념을 재정립 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친환경농업은 생명의 순환원리와 공생의 원리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과 자연은 대기·물·에너지 등을 끊임없이 상호교환 함으로써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고 공생자라 할 수 있다. 농업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된 산업으로 농업과 자연생태계와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 또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농업'을 간략하게 줄여 '환경농업'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환경농업의 개념 규정은 우리나라 환경농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농림부의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1996)에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농림 정책결정자들은 2000년도 초반 ‘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시각에서 보다 강한 의미전달을 위해 접두어 ‘친’자를 부가하여 ‘친환경농업’이란 용어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1997년 12월 제정, 2002년 12월 개정) 제2조에서 친환경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업 전

반의 제도적인 틀을 담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업의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대립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은 적절한 토양관리를 기초로 농업부문의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를 최소화 사용하는 저투입농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저투입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 간주하며, 유기농법(또는 자연농법)은 특수농법으로 규정하여 약간은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과 관련, 다양한 유기농자재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어렵고 유기물을 과다하게 투입하여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오히려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물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양분투입과 병해충 발생시 최소한의 농약을 투입하는 과학적인 정밀농업이 진정한 친환경농업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이 진정한 친환경농업이라는 시각이다. 정부가 그동안 비료의 적정 시비기준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지침을 따르도록 농민들에게 지도해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본질적 차이가 불분명해져 친환경농업의 정체성에 대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장

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농업만이 일반 관행농업이나 저투입농업과 명확하게 차별화 되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관련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체로 친환경농업의 범위는 화학적 농자재의 사용정도에 따라 투입을 최소화하는 저투입농법과 화학적 투입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을 포괄하여 쓰이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저투입지속형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균형투입지속농업, 대체농업, 유기농업, 생명동태농업, 자연농업, 특수농업, 정밀농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국가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친환경농업은 농업생산 방식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측면에서 환경부하, 물질순환, 생물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지역별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업생산 규모를 조정하고 자원순환농법(유기농법 포함)과 저투입농법을 확산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친환경농업의 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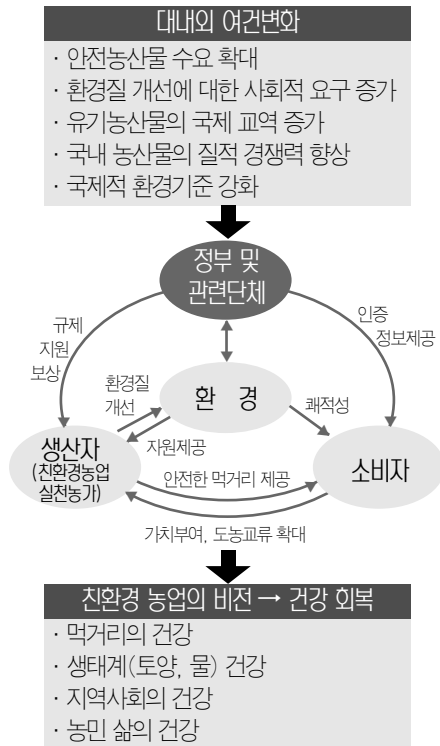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은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국토관리 차원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은 “저비용으로 국토를 관리·보전

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국토관리 생명산업으로 정착” 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비전 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인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보전하는 ‘국토관리의 정원사’로서의 역할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들은 환경이 잘 보전되는 농촌으로부터 쾌적성을 향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게 됨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도농교류 행사 등의 참여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 지역사회 건강도 유지시킬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적 농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업실천에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므로 정부와 관련단체는 건실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상과 규제 프로그램과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소비자에게는 인증제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친환경농업 비전 설정의 키워드는 “건강 회복”이며, 비전이 달성되는 경우 먹거리(식)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 지역사회의 건강, 농민 삶의 건강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다.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우선 인력, 기술, 정보, 시장조성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

###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 체계도



건설한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인력(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시군의원 등)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력육성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인 효과는 적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정책 효과를 나타나게 되며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이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하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을 최대한 활용한 작물양분종합관리(INM)와 병해충종합관리(IPM)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정밀농업의 정착을 위한 기술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화학적 투입재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자재의 검증을 통한 표준 사용기준 설정, Codex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

기농업 기술개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순환 체계를 기초로 한 유기농축업 단지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현장에 관한 정보는 물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자와 정책담당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별 농업여건이 고려된 양분수지표(질소 및 인산 수지표 등)가 계속되어 환경부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의 농업환경성과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환경오염 지도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환경여건, 수질, 토양, 생물다양성 등 관련분야별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DB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적절하게 차별화 될 수 있는 시장조성 기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린마케팅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린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호교류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이 마케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품목 개발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서는 지원과 육성 및 규제 등의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이 결합이 관건이다. 또 지역별 환경여건에 적합한 생산규모와 생산방법 전환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기술·인력·정보·시장조성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